

한국 선수 LPGA 200승 주인공은 고진영



24일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이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서 버디만 8개 임희정과 연장전 끝 우승 4개월만에 세계 1위 복귀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통산 200승 쾌거를 이뤄냈다. 고진영은 24일 LPGA 인터넷셔널 부산(파72·672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기록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임희정(21)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한국 선수 LPGA 투어 통산 200승을 달성하는 영예를 누렸다.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를 받고 다음 주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한국 선수들은 1988년 3월 고(故) 구옥희 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협회장이 스탠더드 레지스터 클래식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따낸 이후 33년 만에 투어 통산 200승을 채웠다. 고진영은 올해 7월 VOA 클래식, 9월 컴비어 포틀랜드 클래식, 이달 초 파운더스컵에 이어 LPGA 투어 시즌 4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랐다. LPGA 투어 통산 11승으로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 김세영(12승)에 이어 신지애와 함께 다승 공동 4위가 됐다. 3라운드까지 임희정에 4타 뒤진 2위였던 고진영은 이날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6개를 몰아치며 단숨에 임희정을 따라잡았다. 12번 홀(파4) 버디로 1타 차 단독 1위에 오른 고진영은 이후 14, 15번 홀 연속 버디로 응수한 임희정에게 1타 차로 다시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17번 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기록해 승부를 연장으로 넘겼고,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173야드 두 번째 샷을 홀 0.5m 정도 옆에 보내며 승기를 잡았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2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다가 넬리 코다(미국)에게 1위를 내줬던 고진영은 약 4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고진영은 한국 선수 200승뿐 아니라 197승부터 200승까지 마지막 4승을 혼자 책임졌다. 고진영은 "3라운드까지 4타 차여서 잘 따라가면 2등은 하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쳤다"며 "프로 돼서 처음 치른 연장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했는데 (임)희정에게 미안한 결과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임)희정이가 잘해서 미국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더 운이 좋았다"며 "국내에 1주일 정도 있으면서 스윙도 손을 보고, 컨디션을 조절한 뒤 남은 미국 대회 2개를 잘 치르고 오겠다"고 말했다. 임희정은 이번 대회 4라운드 내내 보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으나 연장에서 고진영의 벽을 넘지 못했다. 두 번째 샷이 홀 약 8m 이상 떨어진 곳에 놓였고, 희심의 버디 퍼트는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준 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광주 육상 금 13·은 15·동 13...장애인체전 역대 최고 성적

김하은·이승훈·이수연 3관왕 서수연 탁구 여자단식 금메달

광주시 장애인육상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24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광주 육상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3개를 따내 종합점수 1만6121점을 획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광주장애인체육회는 분석했다. 김하은은 24일 여자 200m T12에서 31.44를 기록해 4년 연속 3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승훈(가이드 이흥재)도 남자 200m T11에서 27.90를 기록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쓸어 담았다. 이수연도 여자 200m T20에서 28.60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 문지수는 여자 200m DB에서 28.78을 기록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보냈다. 현재 14개의 메달을 획득한 탁구도 단체전 4개 종목에서 모두 준결승에 진출, 최고 성적이 예상된다. 도쿄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서수연은 여자 단식(TT2) 16강부터 내 세트도 내주지 않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적축구는 대전을 꺾고 결승에 진출해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충청북도도 우승을 다룬다. 마라톤, 여자배구, 탁구 단체전, 론볼, 보치아, 파크골프, 축구 등에서도 메달에 도전한다. 광주시 장애인선수단은 금 54개, 은 48개, 동 46개를 획득, 종합 6위에 올라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선수단의 서영춘이 불링 개인전 DB(청각 선수부)에서 힘차게 스트로크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산악인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 22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발족했다. <광주시산악연맹 제공>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추진위 발족

장애인으로는 세계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이뤄낸 김홍빈 대장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기리는 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열었다. '산악인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시의회에서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겸한 회의를 가졌다. 광주시와 지자체, 김홍빈 히말라야원정대 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산악연맹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열린 추진회의에서는 장병완 전 국회의원과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추진위원들은 회의에서 기념관 건립 후보지로 광주 남구 송암공원을 의결하고 예산 확보방안 등도 논의하는 한편 기념관의 성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홍빈 대장이 지난 7월 14차 마지막 도전자인 브로드피크(8047m)를 완등한 뒤 실종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기념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피길연 부위원장은 "김홍빈 기념관은 김 대장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기리는 것을 넘어 산악과 문화를 결합한 복합융합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산악인들을 교육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클라이밍을 즐기는 산악문화 및 안전 체험 공간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쑥쑥 크는 황선우, 국제대회 첫 금

경영 월드컵 자유형 200m 우승...아시아 기록에 0.14초 차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가 금세 한 뼘 더 자랐다. 생애 처음 출전한 쇼트코스 대회에서 아시아 기록에 근접한 역영으로 국제대회 첫 금메달까지 수확했다. 황선우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막을 내린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 월드컵 2021 3차 대회에서 세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주 종목이 아닌 개인혼영 1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100m에서 연달아 3위에 오른 뒤 마지막 날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1초1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경영 월드컵은 올림픽 규격의 50m 정규코스(롱코스)가 아니라 25m 길이의 풀에서 열리는 쇼트코스(단수로) 대회다. 황선우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인 도쿄 대회에서 자유형 100m 아시아 기록 및 세계주니어기록(47초56), 자유형 200m 한국 기록 및 세계주니어기록(1분44초62)을 새로 쓰면서 국제무대 경쟁력도 확인했다. 그리고는 역시 처음 경험하는 쇼트코스 대회에

서도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주 종목도 아닌 개인혼영에서 입상하더니 자유형 100m에서는 호주의 카일 차머스(45초03),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모로조프(46초31)와 대등한 레이스를 펼친 끝에 동메달을 추가했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 마지막 출전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동갑내기인 매슈 세이즈(남아프리카 공화국)를 마지막 50m 구간에서 따라잡아 마침내 국제대회 첫 금메달을 쟁겼다. 황선우는 이날 세이즈(1분41초33)에 0.16초 앞섰다. 무엇보다도 황선우의 이날 자유형 200m 기록은 박태환(32)이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할 때 작성한 아시아 기록(1분41초03)에 불과 0.14초 뒤진 좋은 기록이었다. /연합뉴스

'60억분의 1의 사나이' 표도르 복귀전 KO승

'60억분의 1의 사나이' 표도르 에멜리아넨코(45·러시아)가 2년 만의 복귀전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고 건재를 과시했다. 표도르는 24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VTB 아레나에서 열린 '벨라토르 269' 메인이벤트에서 미국의 팀 존슨(36)을 1라운드 1분 46초에 KO로 제압했다. 표도르가 순간적인 3펀치 컴비네이션으로 존슨을 쓰러뜨리자 흥 관중들의 환호성은 절정에 달했다. 존슨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승리를 확신한 표도르는 후속 파운딩을 치지 않고 돌아섰다. 표도르는 벨라토르 헤비급 랭킹 2위인 존슨을

제물로 개인 통산 40승(6패 1무효)째를 수확했다. 표도르가 링에 오른 것은 2019년 12월 벨라토르에서 쿼터 '램페이지' 잭슨에게 1라운드 KO 승을 거둔 뒤 약 2년 만이다. 표도르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무패 행진을 벌이며 세계 최고의 격투기선수로 군림했다. 이 기간 당대 헤비급 최강자들인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마크 콜먼, 미르코 크로갑, 안드레이 알볼스키 등을 모두 제압했다. 특히 2009년까지 31승 1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자랑하며 세계 60억 인구 중 가장 강하다는 뜻으로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3관	둔
4관	둔, 보이스
5관	둔
6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9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7관 씨네커롬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스 기적, 용과 주근깨 공주
8관 씨네커롬	007 노 타임 투 다이,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동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